

	보도자료	2026. 6. 24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업무담당자	임상현	☎ 760-725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데이터로 농사짓는다…제주도, 필지별 과학영농 시동

- 농업기술원, 토양 검정 데이터와 농가 경영 정보 연계한 통합 분석 체계 마련 -
- 올해 노지감귤·양파 60필지 시작으로 2030년까지 주요 작목 단계적 확대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필지별 땅속 토양 정보와 경영 데이터를 하나로 결합해 농가별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의 문을 연다.
- 농업기술원은 6월부터 필지 단위 농업 경영 정보와 토양 검정 결과를 연계해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.
 -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 경영·환경 데이터 연계 연구의 일환으로, 필지별 경영 성과와 토양 환경을 정밀하게 상호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.
 - 특히 지난 2024년부터 도 농업기술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해 온 필지별 경영 정보 데이터에 토양 검정 결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제주형 통합 분석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.
-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필지별 생산성과 경영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토양 환경과 경영 정보를 함께 고려해 입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.
 - 이를 위해 생산량, 판매액, 경영비, 농약·비료 사용량 및 투입 비용 등 구체적인 경영 정보와 토양 산도(pH), 유기물, 유

효인산 등 정밀 토양 검정 결과를 연계해 종합 분석한다.

- 분석이 완료되면 토양 양분은 충분하지만 비료 사용량이 과다한 필지, 생산량 대비 농자재 투입비가 높은 필지, 투입 대비 생산성이 우수한 필지 등을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작물별 맞춤형 적정 관리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.
- 종합 분석 결과는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경영 지원 서비스와 행정의 정밀 농정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.
 - 농업인은 자신의 필지 특성에 딱 맞는 경영 개선 방향과 토양 관리, 비료·농약 최적 사용 전략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다음 작기 영농 계획 수립과 생산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.
 - 농업기술원은 분석 데이터를 제주DA와 연계한 인공지능(AI) 기반 경영 성과 분석 지원 현장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가별 경영 진단, 비용 절감 방안, 다음 작기 개선 전략 등을 입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
- 이번 연구는 올해 노지감귤 30필지와 양파 30필지 등 2개 작목 총 60필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대상 작목과 필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.
 - 연도별 확대 계획을 보면 2027년 월동무 30필지, 2028년 양배추 30필지, 2029년 노지당근 30필지 및 마늘 5필지, 2030년 노지감귤 30필지와 양파 5필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.
 - 축적된 고품질 자료는 토양 관리, 경영 컨설팅, 비료·농약 적정 사용 지도, 농업 환경 관리 등 정밀한 농정 추진과 제주DA 기반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

방침이다.

- 김태우 도 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필지마다 토양과 경영 여건이 완전히 달라 단순 평균값만으로는 농가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웠다” 며 “필지별 경영 정보와 토양 검정 결과, 비료·농약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농가에는 실질적인 경영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, 행정에는 정밀 농정 추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겠다” 고 말했다.